

QR코드를 찍으면
인터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친환경 농업용 전기자동차 농업용 전기자동차의 저전압전선 소비전력 저감기술

최근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과 자원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자동차 배출 가스 억제 등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전기자동차 개발에 각국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산화탄소와 배기 가스 배출이 없는 것은 물론, 소음과 진동도 없어 머지않은 미래,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국내 최초로 농업용 전기자동차 개발에 성공한 형제파트너가 주목 받고 있다. 환경과 안전을 생각한 기술 개발로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전기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형제파트너를 만나본다.

기술지원기업 형제파트너

연구책임자 대경지역본부 융복합기술그룹 김영진 수석연구원

국내 최초 친환경 농업용 전기자동차

지난해 전 세계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이 300만대를 넘어섰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으로 수많은 자동차 메이커 및 관련 부품 기업들이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자동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역시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해 1,364억 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현행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조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듯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 특별한 농업용 전기차 제조기업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친환경 농업용 전기자동차 전문기업인 '형제파트너'이다.

지난 2012년 설립된 형제파트너는 농업용 전기자동차를 개발·생산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농기계 분야에 접목시켜 보면 어떨까 생각했다는 형제파트너 김정완 대표.

“농업 분야에도 전기차를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제일 먼저 경운기를 대체할 수 있는 농업용 전기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제품이 바로 ‘아그레브(AGREV)’입니다. 무매연, 무소음, 무진동을 실현한 차세대 이동 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형제파트너의 주력제품인 ‘아그레브’는 농업용 전기자동차로서는 국내 최초이며 유일하다. 고성능 전자브레이크와 4륜 유압방식이 적용돼 불규칙한 노면 위에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운전면허 없이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운전이 가능해 농어촌 지역의 고령인구에게 적합한 농업용 전기자동차로 각광 받고 있다.

전기자동차, 효율 개선방안 시급

형제파트너는 지난 2014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제품 개발에 매진해왔지만 기술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저렴한 가격의 효율 높은 농업용 전기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고민 끝에 생기원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는 김정완 대표.

“전기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부터가 다르죠. 게다가 농업

▼ 형제파트너 1층 전시장에서 논의 중인 융복합기술그룹 김영진 수석연구원(좌)과 형제파트너 김정완 대표(우)

